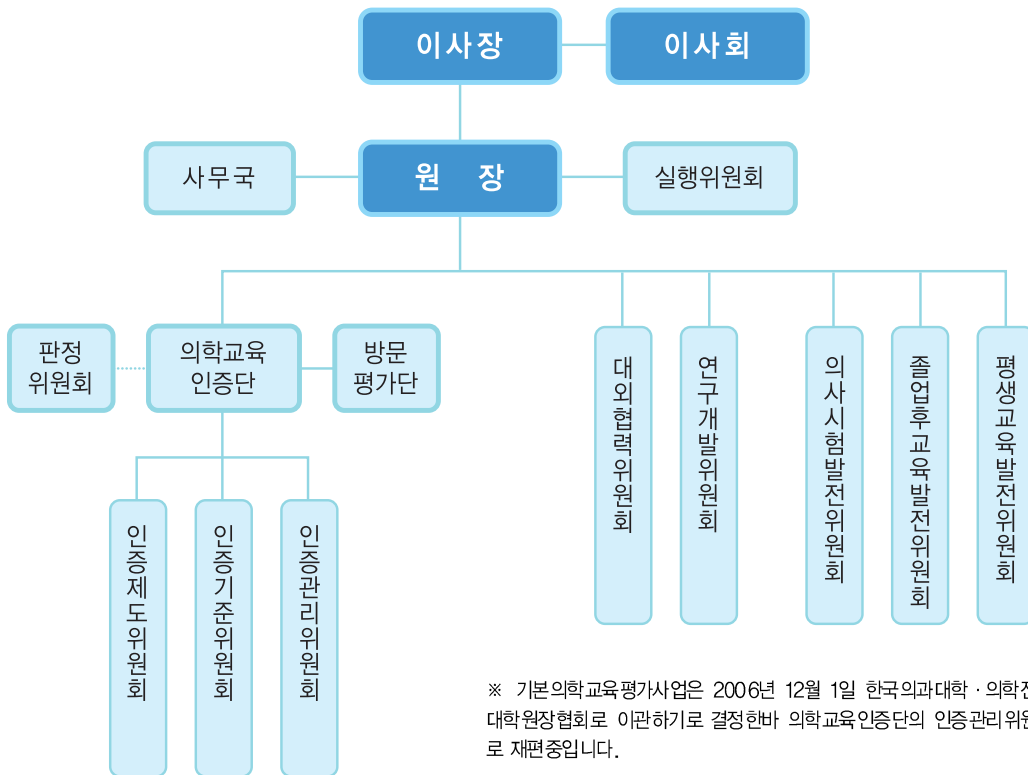




의평원 소식

제3기 의평원 조직도(안) 및 위원회 소개



※ 기본의학교육평가사업은 2006년 12월 1일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한바 의학교육인증단의 인증관리위원회로 재편중입니다.

위원임기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 **의학교육인증단장** : 임기영 (아주의대 의학교육실)
- 의학교육인증부단장** : 이정애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 **인증제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김영창	순천향	소아과학
간사	박귀화	가천	의학교육학
위원	노혜린	강원	외과학
위원	박종훈	고려	정형외과학
위원	박주현	가톨릭	의학교육학
위원	안영준	조선	의학교육학
위원	이흥범	전북	내과학

▷ **인증기준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이정애	전남	예방의학
간사	김선	가톨릭	의학교육학
위원	김정수	전북	방사선종양학
위원	백선용	부산	해부학
위원	윤희상	경상	소아과학
위원	이강욱	충남	내과학
위원	이영환	영남	소아과학

▷ **인증관리위원회** (구. 기본의학교육평가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이병두	인제	내과학
간사	허선	한림	기생충학
위원	권오주	가톨릭	생화학
위원	김남수	한양	소아과학
위원	김동찬	전북	마취통증의학
위원	김호중	성균관	내과학
위원	이영미	고려	의학교육학
위원	이유철	경북	미생물학
간사	전용성	서울	생화학
자문위원	이규민	연세	교육학과학

▷ **연구개발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박원근	계명	생리학
간사	채수진	아주	의학교육학
위원	양은배	연세	의학교육학
위원	이상규	단국	예방의학
위원	전용훈	인하	소아과학
위원	정철운	차	외과학
위원	조성준	강원	흉부외과학

▷ **대외협력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노재훈	연세	예방의학
위원	김형규	고려	내과학
위원	서덕준	동아	생리학
위원	윤태영	경희	의학교육학
위원	이무상	가천	의학교육학
위원	정상혁	이화	예방의학

▷ **의사시험발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정명현	연세	이비인후과학
위원	김경래	인하	외과학
위원	김승호	연세	응급의학
위원	김창열	한양	소아과학
위원	류철희	전북	산부인과학
위원	이종태	인제	예방의학
위원	이영미	고려	의학교육학
위원	임인석	중앙	소아과학
위원	전용성	서울	생화학
위원	박완범	서울	내과학
위원	황인홍	한림	가정의학

▷ **졸업후교육발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김옥	가톨릭	외과학
간사	박장희	건국	교육학
위원	김재중	울산	내과학
위원	박정울	고려	신경외과학
위원	우영종	전남	소아과학
위원	이선우	충남	정신과학
위원	이정렬	서울	흉부외과학

▷ **평생교육발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위원장	김성훈	가톨릭	핵의학
위원	강희철	연세	가정의학
위원	김선	가톨릭	의학교육학
위원	김경한	고신	마취통증의학
위원	김교순	건국	소아과학
위원	이철민	인제	산부인과학
위원	한창수	고려	정신과학

2010년 발전위원 워크숍 개최



의평원은 제3기 발전위원들을 모시고 2010년 4월 21일(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의회관에서 '2010년 발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운성 신임 이사장(서울의대)과 안덕선 신임 원장(고려의대)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향후 의평원의 발전위원회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제3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개 단체장 및 실무위원들을 모시고 5월 15일(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의 사회로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정을 연대기로 나열하는 historical scan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을 통해 3개 단체의 발전방향과 협력방안을 고찰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5차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의학교육인증단(단장 임기영)에서는 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5차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5월 25일(화)에 개최하였습니다. 의평원 신임위원 및 대학평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증평가에 대한 국내 인증평가제도와 인증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2009년도부터 도입한 팀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역별 분임토의 및 모의 팀평가 시간에 평가위원

Role-Play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을 수료하신 분들은 인증평가위원 Pool에 등록이 되어, 차기 평가 시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10차 이사회 개최

본원 제10차 정기 이사회가 재직이사 20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성 이사장(서울의대)의 주재로 2010년 5월 25일(화) 힐튼호텔 엠버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입이사를 소개하고, 2010년 1~4월까지의 회무 및 재무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정관개정(안), 기본재산 종별 변경, 인증평가 분담금 조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이사회 결과는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시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및 본원 정관 제10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되었습니다.

▷ 이사회 명단

구 분	성 명	추천기관	직 위	근 무 처
이사장	이윤성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서울의대
이 사	안덕선(安德宣)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고려의대
이 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사협회
이 사	장성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경희의대
이 사	신민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중앙클리닉
이 사	신원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사협회
이 사	김성훈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가톨릭의대
이 사	안덕선(安德善)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연세의대
이 사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 사	이혜란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	한림대 병원
이 사	김성덕	대한의학회	회장	중앙의대
이 사	최종상	대한의학회	부회장	고려의대
이 사	임정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이사장	서울의대
이 사	왕규창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前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장	서울의대
이 사	김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 사	박성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중앙의대 학장	중앙의대
이 사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관	교육과학기술부
이 사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이 사	성태제	공익대표(교육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화여대
이 사	신성식	공익대표(언론계)	중앙일보 선임기자	중앙일보
이 사	이태운	공익대표(법조계)	前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원

▷ 감사 명단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감 사	정명현	연세의대	국시원 의사시험발전 위원장
감 사	지재근		서울의대 명예교수

제2차 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면접문항개발 워크숍 개최



기본의학교육평가단(단장 이병두)은 의대/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면접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체계적인 선별면접 준비를 위해 '제2차 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면접 문항개발 워크숍'을 5월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실제 면접전형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접방법 설계와 질문문항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건국의전원·연세원주의대·한림의대에 서 입학사정관을 포함하여 입학 관련 담당교원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면접 이론 강의·면접전형 프로세스 및 도구개발·타 대학과의 비교 및 동향 파악·피드백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세부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6차 의학교육학술대회 Parallel Session 의평원 주관 프로그램 진행



의평원은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제26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6월 18일(금) ' 자체평가보고서 준비'라는 주제로 Parallel Session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김영창 인증제도위원장은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의미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인증기준위원인 전북의대 김정수 교수, 가톨릭의대 김 선 교수, 경상의대 윤희상 교수가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작성 요령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30분간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0년 평가대상대학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인증기준 위원 및 의학교육인증단장이 대답을 하는 등 현장감이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의학교육인증단 전문위원 집중워크숍 개최 예정

의학교육인증단(단장 임기영)에서는 의학교육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간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상호협력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인증단 전문위원 집중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워크숍은 7월 1일~3일까지 2박 3일간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개최되며, 인증제도위원회와 인증기준위원회가 함께 인증기준 규정 및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집중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인증평가 일정

2010년 인증평가대학은 가천, 강원, 건국, 건양, 경북, 계명, 고신, 관동, 단국, 대구가톨릭, 동국, 연세원주, 제주, 조선, 차, 충남, 충북 등 17개 대학이며, 향후 평가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서	내 용	일 자
1	2010년 평가위원 선정	6월 말
2	평가대학 현지방문평가 일정 조정	7월~8월
3	대학별 자체평가 연구수행	2월 10일~8월 31일
4	제1차 서면·현지방문평가단 워크숍	7월 16일
5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 및 분담금 납부	8월 31일
6	제2차 서면·현지방문평가단 워크숍	9월 10일
7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9월 1일~9월 26일
8	대학별 현지방문평가	9월 27일~11월 12일
9	대학별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 검토 및 인쇄	11월 말
10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통보	12월

의평원 연구활동

호주 Australian Medical Council(AMC) 인증평가 참관 보고서

- 참관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아주대), 김명곤 의평원 간사(고려대)
- 기 간: 2010년 5월9일(일) ~ 14(금)

〈서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과 의학교육학교실 겸무교수인 김명곤입니다. 저는 제3기(제)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간사로서 아주의대의 임기영 의학교육 인증단장님과 함께, 지난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호주 Perth시에 위치하는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이하 UWA) 의과대학에 대한 Australian Medical Council (이하 AMC) 인증평가 방문단의 일원(옵저버 자격)으로 현장방문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UWA 의과대학은 학생 수 1,000여명, 교수 수 700여명의 6년제 의학교육 기관으로 의과대학 산하에 치과대학(Dentistry)과 의과학대학(Health Sciences)을 두고 있는데, 인증평가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에 full accreditation을 받았고, 2008년 2년 유예를 받아서 2010년 올해 reaccreditation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UWA의 의학교육과정(이하 curriculum)은 2008년 개정된 교육과정으로서 2014년 대대적인 개정을 위해서 일종의 시험적인 기간 중에 인증평가를 받음으로서 외부 자문 및 평가를 통한 내부 개혁의 동력을 삼고자 하는 학장 및 보직자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학교육 인증평가 1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40여년 역사를 갖고 있는 호주 AMC의 현장방문 평가단으로 참관함으로써 양국의 장점-단점-기회-위험 요소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우리 의평원과 호주 AMC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요쟁점 위주로 기술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AMC의 인증평가는 사전준비가 치밀하다.

AMC는 방문평가 6개월 전쯤 인증평가단을 구성하고 피평가대학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전달 검토하게 하여 충분한 시간의 서면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전 미팅(예: UWA의 경우 5월 9일 방문평가 2개월 전인 3월 9일 시행함)을 통하여 각 위원들 간의 상견례 및 영역별 의견교환을 하고, 향후 방문평가 시까지 검토하여야 할 업무를 자세하게 분장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치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평가 일정표(5월 9-14일, 5박6일간)가 매우 자세한 점도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는데 각 평가위원별로 역할 및 업무가 낱자별로 명시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시간 및 장소뿐만 아니라 피평가대학의 참석자까지도 적시되어 있어서 매우 빠박한 스케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AMC의 인증평가단 구성은 다양하다.

금번 AMC의 UWA 인증평가 방문평가단 평가위원들은 읍저버로 참여한 2명을 제외하면 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구성은 단장 1명(네빌 여만, 서시드니대학 전임 초대학장)과 1명의 교수(리처드 헤이즈, 본드대의대 학장), 4명의 부교수(웬디 브라운, 모나쉬대학; 로버트 브라이스, 플린더스 의료원; 게일 가비, 퀸스랜드 의학연구원; 날리니 파터,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그리고 행정요원 (카린 올드필드, AMC) 등 입니다. 특히, 방문평가단의 구성을 위한 요인 들 중 나이와 성별, 평가경력, 지역 등의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AMC의 행정요원이 동행해서 모든 일정 및 보고서 작성까지도 조율하는 면에서 단장과 간사 위주의 우리나라의 평가단 구성과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3. AMC의 인증평가 규정은 curriculum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난 2005-2006년 제2주기 인증평가기준 개정작업에서 접했던 2000년대 초반의 AMC 인증평가 규정과 2010년 규정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교수학습, 교육과정평가, 학생, 시설 및 설비의 모든 면에서 curriculum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평가 규정 상 정량적인 항목에 비해 정성적 항목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예: 미국의 LCME, 영국의 GMC, 등)에서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추진 중인 인증평가기준 개정작업에서도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4. AMC의 방문평가 보고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AMC의 인증평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사전 서면평가와 사전회의를 수행하고 1주일 동안 현장방문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며, 방문평가 최종일 오전에 팩스로 피평가대학 학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평가단과 피평가대학 보직자들이 간단한 점심 또는 티타임을 가지며 인사하는 것이 마무리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일 하루 전날은 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각 평가위원들이 이미 작성된 초안을 갖고 만나서 최종 조율하는 데만 6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평원에서는 방문평가 후에 최종보고서 마감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문평가와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점은 꼭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 입니다.

5. AMC의 방문평가 사후 관리가 철저하다.

호주의 AMC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은 매 2년마다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증 이후 해당기간 동안 변화된 항목을 보고함으로써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확인하여 대학발전의 사회적 책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MC 측에서도 이러한 대학의 보고서를 매년 서면심의하고 있어서 항상 인증된 대학의 변화 및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실제 2010년에도 호주의 총 18개 의과대학 중 인증평가단 방문평가는 4개 대학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정기적인 서면평가는 10여개 대학이 대상이어서 50여명의 직원들이 항상 업무가 많다고 동반한 행정요원이 귀땀해 주었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

리의 참관을 마친 1달 후인 6월 초 AMC로부터 옮겨버로서 방문 후 피드백을 위해 15가지 항목을 요청한 것만 보아도 모든 인증평가 절차에 사후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호주 AMC와 우리나라 의평원의 방문평가단의 차이점은 양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 보다는 질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학교육 인증평가 10년의 역사를 넘기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양적·구조적 기틀은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역시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최대 장점으로 갖는 호주 AMC를 비롯한 선진국의 인증평가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소프트웨어적인 질적·기능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의학교육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의학교육자이지만 감히 아래와 같이 3가지 제안으로 맺는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인증평가단의 구성부터 해산까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2. 인증평가단의 실제적인 방문평가를 위하여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3. 인증평가 기준부터 보고서까지 정량적 보다는 정성적인 요소가 중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번 호주 AMC 의학교육인증평가의 방문평가단 참여경험은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과 인상을 남겼고 우리 의평원을 대표하여 참여한 만큼 AMC를 통해 보고 배운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우리나라와 호주의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자문 및 실행평가 연구’ 협약서 체결

의평원은 교육과정 자문 및 실행평가를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서성욱)과 6월 7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제명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자문 및 실행평가 연구’이며, 연구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10월 15일, 연구비는 2,000만원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수준에 맞게 달성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고, 향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http://www.kimee.or.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식 제13호

· 발행처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발행인 : 안덕선 · 편집 : 대외협력위원회 · 인쇄 : (재)한국의학원